

禹秉鍾의 心性假傳 및 托傳研究

曹 壽 鶴

目 次

- | | |
|------------------|-----------------|
| 一. 序 | 四. 行狀과 托傳 |
| 二. 〈天君傳〉의 概念 | 1. 行狀의 要約 |
| 1. 天君과 心性의 關係 | 2. 托傳小考 |
| 2. 장르적 屬性 | 五. 作品의 分析 및 文學性 |
| 三. 形成背景 및 作品의 系列 | 1. 作品의 內容分析 |
| 1. 作品의 形成背景 | 2. 文學性 |
| 2. 心性系 作品의 系列 | 六. 結論 |

一. 序

요사이 인간의 心性을 假托한 作品들이 몇 가지 發見되는 가운데 禹秉鍾(1820~1883)의 〈天君傳〉과 그의 托傳인 〈八桂愚翁傳〉이 發見되어 이를 세상에 소개할 겸, 曹植의 〈神明舍銘并圖〉와 金宇顥의 〈天君傳〉 관계를 규명하여 보고자 하는 뜻에서 본고를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이 관계를 연구함에는 性理學에 대한 많은 知識이 요구되는데, 筆者로서는 이에 대한 소양이 없어서 감히 텃치하기 어려운 것이겠으나,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假傳系 작품을 다루어 온 필자로서는 책임감이 앞서서 감히 시도해 보지마는 처음부터 疎略을 면치 못할 것은 自明한 일이다. 同學先輩들의 많은 叱訂을 받아 더욱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견해의 일단을 整理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心性系 假傳에 대하여는 그 文學性を 의심하여 學界에서는 비교적 소외되어 왔는데 필자 역시 동감이나 그러나 他假傳에 比하여 같은 素材를 다룬 作品의 편수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文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性理哲學과의 관계가 밀착하지 못한 것에 原因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의심을 풀어 보고자 함도 본고 시도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부기하여 둔다

二. 天君傳의 概念

1. 天君과 心性的 관계

天君이라 하면 道家系統의 玉皇上帝나 佛家の 帝釋이나 크리스트敎의 하나님들을 연상케 하지만 여기서는 儒家의 非人格的인 天思想 곧 大自然의 攝理와 人間心性構造를 同一視하는 天人心性合一思想¹⁾에 依한 것이다.

이 天君이란 말이 처음 쓰여지기는 《荀子, 天論篇》에서 “마음이 中虛에 있어서 五官을 다스리는 까닭으로 이를 天君이라 이른다.”²⁾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謂天君」이라 하였고, 范俊의 〈心箴〉에서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능히 생각하고 공경하면 天君이 태연하고 온몸이 마음대로 따르게 된다.”³⁾고 하였으니 이도 곧 天君은 마음 즉 사람의 정신이 되는 것이다.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

그런데 《後漢書》〈東夷傳〉에 보이는 天神을 主祭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으니 “여러 나라와 고을에 각각 한 사람이 天神을 主祭하는데 이를 물려서 天君이라 한다.”⁴⁾ 「諸國邑 各以一人 主祭天神 號爲天君」고 되어 있는 것과 《海錄碎事》〈政治·祭祀〉에 나오는 “천신을 제사지내는 것을 天君이라 이른다.” 「一祭天神 號天君」등은 祭天儀式에 따른 祭主를 일컫는 말로서 본 〈天君傳〉의 天君과는 관계가 먼 것이다.

보다 ‘天君’에 대한 概念을 具體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方法으로 우리나라의 朝鮮朝中期에 들어 서면서 天君에 對한 10餘篇의 作品들이 傳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현재까지 筆者가 새로 發見한 作品만도 7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새로 발견된 李弘萬의 〈神明舍天君紀〉⁶⁾와 이미 널리 알려진 林億의 〈愁城誌〉 및 柳致球의 〈天君實錄〉등에서 밝혀 놓은 天君의 概念을 살펴 보기로 한다.

① 첫째 〈神明舍天君紀〉에서는 “눈의 역할은 보는 것이요, 귀의 역할은

1) 權近(陽村)著, 入學圖說 卷一, 張一.

2) 같은 뜻의 말이 《荀子 解蔽篇》에서도 “心者形之君也出令而 無所受令 自禁也, 荀卿: 名況, 卿은 그의 尊號戰國趙人 性惡說主張.

3) 范俊(浚): 中國宋代蘭谿人, 號, 香溪, 官, 紹興間, 秦檜가 國權을 잡자 사직하고 학문연구에 전념하였음.

4) 楊家駱主編《後漢書》鼎文書局刊·25史 p.2818.

5) 宋葉廷珪撰《四庫提要, 子, 類書類》

6) 李弘萬(1701~1778)《慵窩集卷三張 10》

듣는 것이다. 그 보이는 것이 있나든지 그 들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천군에게 보고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예스러운 것입니까 예에 어긋납니까?’,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예스러운 것입니까 예에 맞지 않습니까?’ 하면 천군이 말하기를 ‘예스럽다’고 하면 따를 것이요 예가 아니라고 하면 따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 오로지 天君의 命令에 달린 것이다.⁷⁾

「日司視，耳司聽，厥有視聽有聽，必告之于天君曰，吾之所視，其禮乎非禮乎，吾之所聽，其禮乎非禮乎，天君曰是禮也，則從之，天君曰非禮也，則違之，曰從曰違，惟天君之命」

② 둘째 〈愁城誌〉의 첫머리에는 天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天君이 即位한 첫해는 곧 降衷의 元年이다. 仁과義와 禮와 智에 각각 그 단서 (惻隱・羞惡・辭讓・是非)를 깨우니 모두 그 받은 바 직책을 오직 부지런히 행하더라. 喜와 怒와 哀와 樂을 모두 中心에서 總管하여 嚴(시책)라는 것이 나 적중하였으니, 보는것, 듣는것, 말하는것, 행동하는 것을 다 함께 禮로써 통괄하고 네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⁸⁾이 統制가 됨에 오직 이때에 天君이 靈臺에 높이 올라 양손을 마주 잡으니 百體가 命令을 따르더라.”⁹⁾

「天君即位初，乃降衷之元年也」

曰仁曰義曰禮曰智，各充其端，率職惟勤，曰喜曰怒曰哀曰樂，威愷於中，發皆中節，曰視曰聽曰言曰動，俱統於禮。制以四勿。維時，天君，高拱靈臺，百體從令」

③ 세째 〈天君實錄〉에서는 〈神明舍天君紀〉와 〈愁城誌〉와는 다른 側面에서 天君의 概念을 把握할 수 있다.

“寶文閣의 侍臣 元銳・虛中・知白・玄光등이 삼가 제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씀 드립니다. 臣등이 앞드려 생각하옵진대, 萬대의 수레를 가진 임금을 天子라 하고, 千대를 가진 임금을 諸侯라 이르나니 天子와 諸侯가 존귀한 까닭은 그 토지와 인민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때에 따라 분일되고, 인민도 때에 따라 떠나버리니 그렇게 되면 존귀 한자도 그 존귀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서 문래부터 비천한 匹夫모라도 도리어 못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옛날 夏나라 宋王인 桀이 南巢에 추방되고¹⁰⁾, 后辛은 牧野에서

7) 李弘齊(1701~1778) 《慵窩集》

8) 四勿, 《論語》; 顏淵第十二》 顏淵問仁.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

爲人由己，而由人乎哉. 顏淵曰請問其目，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9) 林明德, 《韓國漢文小說全集 卷六 p. 236》 林錦(1549~1587) 〈愁城誌〉

10) 《書經，仲虺之誥》 成湯放桀于南巢.

불 태워지교¹¹⁾, 趙臺는 百日을 굶주렸고, 齊梁은 하룻밤사이애 죽었으니 토지와 인민이 많은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어찌 天君이 토지와 인민이 없어도 존귀함을 받아서 天地와 더불어 유구하고 日月과 더불어 항상 같이 있는 것과 같겠는가!”¹²⁾

『實文閣侍臣, 元銳, 虛中, 知白, 玄光等, 謹再拜稽首言, 「臣等伏惟 萬乘之君 謂之天子 千乘之君 謂之諸侯, 天子諸侯之所以尊貴者 以其有土地人民也, 然土地 有時而分裂 人民有時而離, 則尊者失其尊 貴者失其貴 而反乎不如匹夫之本卑且賤, 若帝桀之放於南巢 后辛之焚於牧野, 趙臺百日之餓 齊梁宿昔之死, 而無以恃土地人民之衆矣, 豈若天君 不土而尊, 不民而貴, 與天地攸久, 與日月恒若也哉. 』

以上에서 살펴본 天君에 대한 개념을 한 말로 정리하여 보면 天君은 곧 사람의 五官(視・聽・嗅・味・觸) 및 四端・七情을 支配統括하는 精神作用인 心인 것이다.’

2. 장르적 屬性

〈天君傳〉은 곧 心의 傳記인 것이다. 따라서 그 장르적 屬性은 假傳에 속한다.

‘心’의 傳記가 實傳이나 假傳이나? 하는 것도 일단 문제가 되겠으나 筆者는 사람은 心만으로서서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靈肉이 갖추어져야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假傳體 小說考〉¹³⁾에서 이미 밝혔을 뿐만 아니라 擬人作品을 研究한 몇분 學者들도 天君關係作品들을 〈토끼전〉・〈鼠大州傳〉・〈두견지전〉등 寓話小類와 함께 義인 作品으로 처리 (寓話 제통의 義인과는 비유적 元觀念과 補助觀念이 正反對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擬人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였으니¹⁴⁾ 心을 그대로 사람으로 본다면 義인이란 말이 成立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의 의견이 一致하고 있다. 그러므로 天君傳은 사람의 心性을 元觀念으로 한 假傳인 것이다.

이것이 增衍되고 深化하여 人情世態 및 生活相을 그려서 古小說의 경지에

11) 《史記 卷三》, 周武王於是遂率諸侯伐紂 紂亦發兵距之牧野 甲子日紂兵敗 紂走入登鹿臺 衣其寶玉衣 赴火而死.

12) 柳致球(1783~1854) 〈天君實錄〉《韓國漢文小說全集卷六 p.169》

13) 《中國語文學 第四輯》1982.5. 嶺南中國語文學會.

14) 金光淳; 《天君小說研究》p.10. 1980. 6.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pp.131~175. 1959. 4.
鄭柱東; 《古代小說論》pp.310~323, 1966.3.

이르게 되면 그것이 곧 假傳體小說이 되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天君傳>의 속성은 假傳이며 假傳은 東洋傳記의 제 4종에 속함으로 그 形式的 특성도 ‘傳’의 形式을 고수하고 있다. 즉 서두에는 반드시 人定記述을 원칙으로 한다. 人定記述은 본인에 限하지 않고 특기할만한 조상이나 始祖에 까지 遡上하는 것이 通例이며 또한 가능한 한 그 本貫까지 밝혀서 人的 固有性을 확정하는데, 그 이유는 ‘傳’을 짓는 目的性이 모범성과 표창성 및 전달성을 주로하기 때문이며 특히 표창성에는 표창의 대상인물이 불확정하다면 표창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본 <天君傳>에서도 그 서두에 「天君者 靈垺人也」라고 本貫을 밝히고 「其先曰皇上帝」라하여 祖上을 밝혀 두었다. 그리고 결말 論評部 題名에 있어서는 대개 그의 職分을 밝히는 것이 通例로 ‘太史公曰’, ‘史臣曰’, ‘外史氏曰’ 등인데 여기서는 ‘惺窩居士曰’하고 自號를 밝혀서 논평을 가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작자 자신이 一生 布衣之士로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托傳의 評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뜻은 도덕에 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¹⁷⁾ 「極其言其可謂志於道德者耶」라고 했으니 文章에 있어서까지도 假想의 관점을 나타내기를 싫어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事件의 主人公에 대한 의인의 방향이 일반 이춘제의 우화와는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元觀念이 사람이 아니라 心이고, 補助觀念이 事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본 <天君傳>은 그 장르적 속성이 假傳임이 分明하다.

三. 形成背景 및 作品의 系列

1. 作品의 形成背景

前示 장르적 속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天君傳>의 그 장르적 下位개념이 假傳에 속한다. 假傳의 효시는 중국 唐代 韓愈의 <毛穎傳> 및 그의 <下邳侯 革華傳>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우리 나라에 유입되어 고려조 후기의 林椿의 <麴醇傳>이나 <孔方傳>에서 부터 <清江使者玄夫傳>, <龜先生傳>, <楮生傳> <竹夫人傳>, <丁侍者傳>등 東文選에 실린 작품만도 7편이 되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石洲 權輿의 <郭索傳>을 비롯하여 20여편 작품이 發見되고 있

15) 拙稿<假傳體小說考> ibid.

16) 拙稿<假傳體 小說考>《中國語文學 第四輯》p.118. 1982. 5.

17) 禹秉鍾《惺窩集 卷之六 張三十六三十七》

다. 그런데 한가지 特記할 만한 사실은 대개의 假傳작품들의 主人公은 사람을 가장한 사물로서 人間生活에 寄與度 높은 植物, 動物, 用具 및 嗜好物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고려말에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宋學이 조선조 明宗・宣朝年間에는 가라성 같은 유학자가 배출되어 理氣心性의 宋學이 크게 일어나 조선유학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으니 그 중에서도 李滉이 理氣二元論에 대하여는 奇大升과 四端七情을 主題로 8년간의 論辯 끝에 ‘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란 理氣互發說로 결론이 내려지는가 하면, 曹植一派는 氣節을 崇尚하기도 하였으며, 李珥는 ‘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成渾과 6년간에 걸친 ‘四七論爭’이 일어나는 등 특히 李滉의 溫柔敦厚한 哲理探求는 멀리 日本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었다¹⁸⁾. 따라서 이러한 不可視의 思辨의인 學理를 可視의으로 說明을 하기 위하여 李滉은 周敦頤의 <太極圖說>이나, 權近의 <人學圖說>등의 영향으로 <聖學十圖>와 <天命圖說>¹⁹⁾을 짓는등 그의 많은 학자들이 圖說을 지어서 시각적인 설명을 하였다.²⁰⁾ 이러한 性理學의 전성기를 배경으로 心性은 主人公으로 한 假傳이나 假傳體小說 및 假說・假記등이 계속하여 10여편이나 쏟아져 나온 것은 매우 수긍이 되는 일이다.

曹植의 <南冥集, 學記篇>에도 河圖・洛書를 비롯하여 詳略大小어 20편의 圖說을 그려서 心統性情의 系統을 說明하고 있는데, 이 學記篇과는 별도로 詩賦편에서 <神明舍銘>을 짓고 <拜圖>를 그려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발견된 心性系작품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된 것으로 알려진 金宇顒의 <天君傳>題下 雙註에는 “南冥선생이 神明舍圖를 짓고 선생에게 傳을 지으라고 명명했는데 내게 선생의 일소 시절의 일이다.”²¹⁾ 「南冥先生 作神明舍圖 命先生作傳 蓋先生 年少時也」.

東岡 金宇顒은 南冥先生의 뛰어난 제자 6명중의 한 사람이다.²²⁾

여기에서 南冥의 <神明舍銘>을 끌어하여 보기로 한다.

“太一眞君²³⁾이 明堂에서 정치를 펴니, 안으로는 冢宰²⁴⁾가 주관하고, 밖으로는 百

18) 嶺南學會《韓國史近世前期篇》p. 693~703.

19) 上掲書 ibid p. 696~696.

20) 上掲書 ibid pp. 696~698.

21) 東岡先生文集 卷之十六 張十五.

22) 嶺南學會《韓國史 近世前期篇》p. 69.

23) 天地를 創造하는 渾濛한 元氣를 主宰하는 것.

《莊子・天下》疏：太者廣大之名 一以不二爲稱 言大道曠蕩 無不制園 括囊萬有 通而爲一 故謂之太一也.

《史記 天官書 注》泰一天帝之別名 劉伯莊云泰一天神之最尊貴者也.

24) 冢宰：周代 六官의 長으로 天子를 輔佐하고 百官을 統御한 役 後世의 吏部尙書

揆²⁵⁾가 보살피며 承樞(承政院)에서 기밀을 출납하는데, 忠과 信으로 文辭를 담고 네 자의 兵符(和·恒·直·方)를 발하고 百勿(백가지 해서는 안되는 일) 것발을 세우고 九竅(人體의 아홉 구멍)의 간사함이 三要(耳·目·口)에서 발하니 微細한 움직임도 용감하게 이겨서 나아가 사살(屠殺)하도록 가르치고 丹墀(天子的 뜰)에서 복명하니 堯舜의 세월이 되더라. 三關(耳關·目關·口關)이 閉塞됨에 따라 淸野는 가이 없고 하나의 尸董²⁶⁾으로 돌아가서 깊숙히 고요하더라.”

「太一眞君明堂布政，內家宰主，外百揆省，承樞出納，忠信修辭，發四字符(和恒直方)建，

進教屠殺，丹墀復命，堯舜日月，三關閉塞，淸野無邊，還歸一尸而淵」

여기에서 이 銘에 대한 다음 페이지의 井圖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神明舍圖는 곧 心統性情을 圖示한 것이다. 神明은 곧 사람의 마음²⁷⁾을 뜻하며, 舍는 宇宙의 축소형인 집인 것이다. 이 神明舍안에 자리 잡고 있는 太一君의 太一은 곧 萬有를 포함하는 大道로서 天地創造의 混沌한 元氣를 말함²⁸⁾이니, 이는 곧 人間의 性情을 統括하는 心인 것이다. 이 心이 사람의 一身을 統括하는 帝王이 天下의 國家를 統治하는 原理에 擬倣하여 作圖한 것이라 믿어진다. 그러므로 神明舍는 곧 帝王宮闕을 뜻하며, 太一君은 天子이니 天子的 뜰은 九階이라, 神明舍의 階段도 아홉층으로 되어 있다. 敬은 마음의 으뜸이니, 領議政격인 冢宰가 되어서 內政을 主宰하고 左右의 두 愷는 左右議政격이다. 口는 마음의 의사를 外部에 發하는 것이니 그것을 맡은 것은 承政院격인 承樞이며, 天子的 命令인 意思의 發表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忠誠스럽고 信實하여야 하며, 아무리 忠과 信을 다하여도 語法이 틀리려는 意思가 바로 傳達되지 못하므로 말과 문장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承樞안에 忠信과 修辭를 자리잡게 한 것이다. 이리하여 天자의 政令이 外部로 發하는데는 두가지 큰 갈래가 있는데, 그 하나는 地方統治인데 이것을 百揆가 맡아서 方伯 首令들을 감찰하여야 하므로 致察한다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外侵을 막는 곧 國防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맡은 것이 司寇인 것이다. 國防은 싸워서 이겨야 하므로 克治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다.

이 兩 役割은 人體에 있어서는 영양을 잘 섭취하여 四肢의 기능이 온전해

에 해당함 《書經，周官》冢宰 掌邦治 統百官 均四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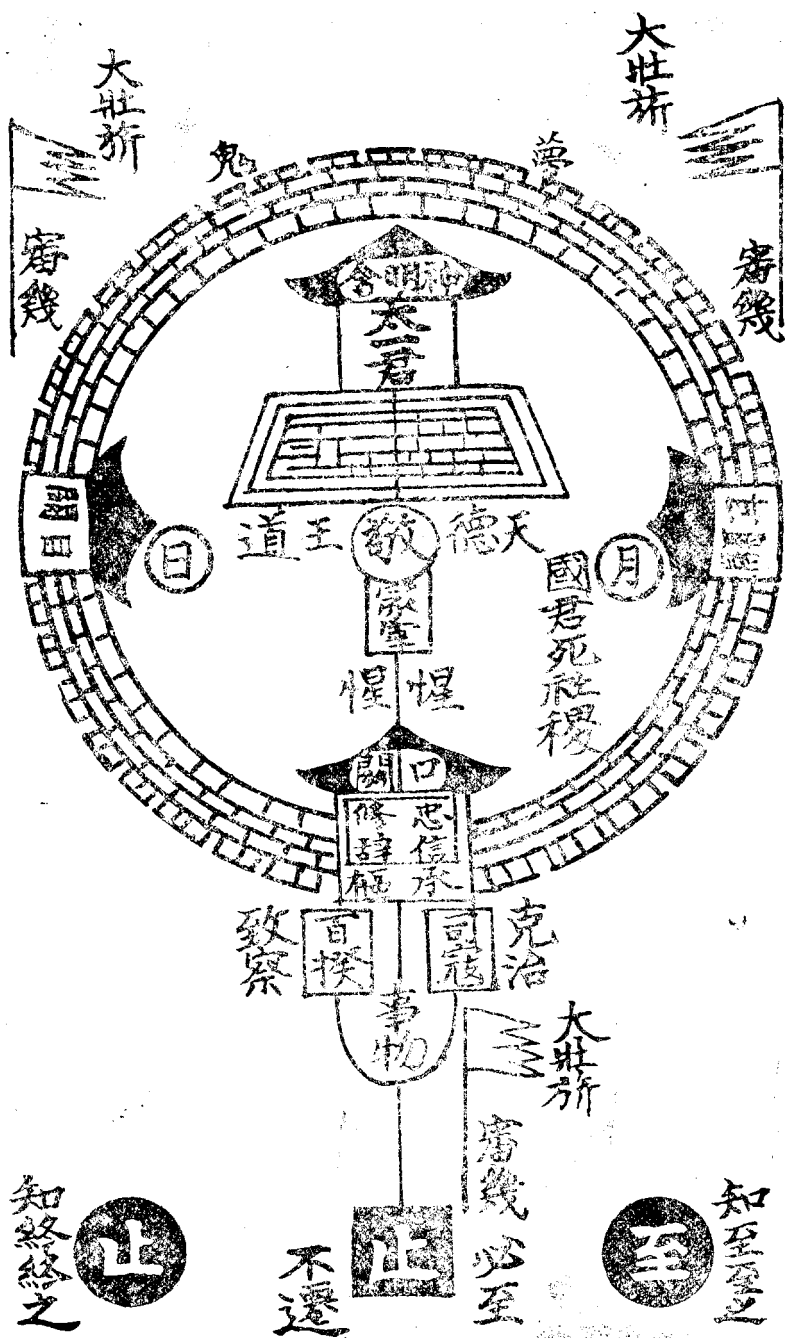
25) 百揆; 百官을 統理하는 官, 곧 百官의 長 《書經，舜典》納于百揆 百揆時叙 《蔡傳》揆度也 百揆者 揆度庶政之官 惟唐虞有之猶周之 冢宰也.

26) 옛 제사에서 12살 이하의 순진 무구한 아이를 얹히어 神體로 삼는 것.

27) 《莊子，齊物論》; 勞神明爲一 而不知其同也 謂之朝三.

28) 《莊子，天下》; 老聃이 聞其風而悅之建之 以常無有 主之以太一 以瀊弱謙下爲表 以空虛不毀萬物爲實.

神明舍銘 并圖



야 하는 것과 危害를 가하는 여러가지 첩법, 곧 싸움을 걸어오는 人間의 첩법은 물론 사나운 짐승이나 毒蟲의 危害를 방지하는 등의 일이다. 이와 같은 이치가 不變(不遷)의 지극한 경지에 달하는 것이 곧 止인 것이다.

이와 같은 계통을 天地自然에 依倣한다면 <太極圖說>과 相符하는 점이 있다. 곧 太極이 剖判하여 陰陽이 動靜하는 가운데 五行이 相生相克하여 天·地·人이 形成되고 萬物이 化生하는 이치와, 또 天命의 性和 率命의 道와 修道의 敎와도 같은 원리라 하겠다.

그리고 주위에는 城과 같은 것으로 둘러져 있고 세군데 關門이 있는데, 좌측의 目關이 해에 해당하고 <太極圖說>의 陽에 해당하며, 우측의 闕關인 耳關은 달에 해당하고 <太極圖說>의 陰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레의 성벽 같은 것이 四重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곧 ‘四字符’인 和·恒·直·方을 상징하며 이四字符의 역할은 곧 太一君의 天德과 王道를 엿보는 鬼와 夢과 百勿의 代表格인 四勿(예가 아닌것은 고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을 방어 하는 것이라 이해 된다. 그리고 이 三關은 동시에 九竅의 간사함을 대표(三要, 곧 세가지 요소 耳·目·口)하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 간사한 기미를 살피는 審幾의 것대를 세우고 百勿旂(龍鳳을 그린 旗의 大將格인 大壯旂의 것발을 달아 놓았으니 이는 마치 四字符의 성곽은 서울의 都城과 같으며 三關은 東·西·南의 관문이요, 三要는 國防의 要塞이며 大壯旂는 守備大將의 것발을 상징한다고 보겠다.

이리하여 국가의 통치 질서가 완비되고 天德은 곧 人德과 王道政治를 다한 國君이 죽어서는 宗廟의 神으로 모셔지는 것이니 人道를 다한 個人은 祖上神으로 받들려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格物知至의 ‘至’가 되고 마침내 止於至善에 終之하는 ‘止’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 하겠다.

叙上과 같은 <神明舍銘并圖>에 依하여 金字韻의 <天君傳>이 지어졌기 때문에 傳의 서두 人定記述에는 첫 祖上을 有人氏라 부르고, 그 땅은 圓顙山에서 交趾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圓顙山’은 곧 神明舍 주위를 둘러싼 四字符의 城을 의미하며 ‘交趾’는 物格의 對象인 事物을 거쳐서 必至, 不遷의 止에 대한 패로디(parody)적 표현이라 하겠다.

諸侯들의 迫戴에 依하여 建元帝의 子 熙帝를 세우고 熙帝의 말아들이 곧 天君인데, 이 天君이 神明殿에서 朝會를 했다고 하니 이가 곧 太一君이 神明舍에 자리잡은 神明舍圖를 나타낸 것이요, 그 이전은 一般假傳의 人定記述法에 따른 것이다. 太宰 敬은 冢宰이며, 百揆 義는 곧 百官의 長이다. 그리하여 二相의 善政으로 政治가 잘되어 나가는데 公子 懈라든가, 公孫 傲등 곧 人間의 懈弛한 마음이나 傲慢한 마음등, 여러 가지 간사한 도적들이 일어

나고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大將軍 克己가 四勿旂를 세우고 선봉장이 되어서 亂賊을 물리치는 등 一般軍談의인 假傳들과 같은 構成으로 엮여져 있음을 볼 때, 우리의 心性 假傳이나 假傳體小說들의 形式的인 遠源은 唐 韓愈의 <毛穎傳>을 爲始하여 고려 후기의 假傳들이 될 것이고, 內容의인 遠源은 <中庸> <大學>등의 四書에서 부터 中國宋代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邵雍(1011~1077)의 <皇極經世書>와 朱熹와 그의 弟子들에 依하여 지어진 <近思錄>과 眞德秀(1177~1235)의 <心經>에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 와서 麗末의 李穡등 몇몇 儒家에서부터 權近의 入學圖說과 近源으로서는 待敬德, 李彥迪, 李退溪 등의 性理에 由來된다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心性 假傳이 直接쓰여지게 한 動機는 바로 曹植이 <神明舍并圖>를 짓고 그의 제자 金宇顥로 하여금 이에 대한 傳을 짓게 한 것이다.

2. 心性 作品의 系列

이와 같이 하여 心統性情에 대한 南冥의 獨特한 圖解와 東岡 金宇顥의 文章構想力이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整理된 것이 <天君傳>인 것이다. 이 <天君傳>에 잇달아 林悌의 <愁城誌>가 나왔는데²⁹⁾ 여기서의 主된 素材(題材)는 心性 가운데서 근심에 해당하는 愁心이 되는 것이라서 일견 <天君傳>과 系列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서두에서부터「天君即位之初 乃降衷之元年也 曰仁 曰義 曰禮 曰智 各充其端 率職惟勤 曰喜 曰怒 曰哀 曰樂…」으로 시작하니 이는 누가 보아도 心인 天君과 四端·七情과의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제목과문장의 장르가 傳과 誌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系列의 作品들을 현재까지 筆者가 알고 있는대로 그 계열을 표로 작성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心性系 作品의 系列表

NO	作 品 名	作 者	生 卒 年 代	장 르 規 定	備 考
1	天 君 傳	金宇顥	1540~1603	假傳系(小說的)	
2	愁 城 誌	林 悌	1549~1587	假誌系小說	文體上 假傳體 小說
3	天 君 紀 序	黃中允	1577~1648	假史?(本紀形式)	序文만 傳해 지고 있음 최근 발견

29) 林悌는 金宇顥 보다 9년 뒤 (1549)에 나서 18년을 먼저 죽었기 때문에 후 작품의 先後에 의문이 있을 수 있었으나 <東岡集卷八 東岡先生年譜>에는 嘉靖 四十五年 丙寅 先生二十七歲 作天君傳'으로 되어 있는데 白湖의 <愁城誌> 創作年代는 그의 32歲 때로 推定(金光淳의 天君小說研究 p.119)하고 있으므로 <愁城誌>는 <天君傳>보다 약 14년후가 되는 셈이다.

4	天君說	崔 麟	1597~	假說	최근 발견
5	天君演義	鄭泰齊	1612~1669	假演義系小說	文體上 假傳體小說
6	天君大誥	權碩均	1613~1674	假誥	최근 발견 ※書經에서 비롯된 形式, 大誥는 王者의 誥
7	義勝記	林 泳	1649~1696	假記(小說的)	
8	神明舍天君記	李弘禧	1701~1778	假記	최근 발견
9	南靈傳	李 鉦	1760?~1607?	假傳	
10	心史(天君本紀)	鄭琦和	1786~1840	假史系小說	文體上 假傳體小說
11	天君實錄	柳致球	1783~1854	假實錄系小說	文體上 假傳體小說
12	天君傳	禹秉鍾	1820~1883	假傳	최근 발견
13	天君說	金道和	1825~1912	假說	최근 발견
14	天君頌	郭鍾錫		假頌	頌體, 최근 발견

위 表에서 心性系列의 作品들을 一瞥하였다. 그 가운데는 小說的인 作品도 있고 또 小說이라 할 수 있는 作品도 있으며, 또 序·說·誥·記·傳·頌등은 이야기 형식으로 각각 그 장르屬性에 依하여 물이 설명 내지는 칭송하기도 하였으나 그 源流는 都是 南冥의 <神明舍銘并圖>에서 벗어난 것이 거의 없다 하겠는데 다만 小說的 作品이나 小說作品은 이를 增衍潤色하여 하나의 君國治亂의 이야기로 꾸몄고 기타 作品들은 그중 一部단의 물이 설명으로 되어 있다.

그중 <愁城誌>는 고려 假傳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主된 內容은 心性에 관한 것으로 大同小異하며, <南靈傳>은 主人公이 담배로 되어 있어 一見 一般的인 假傳인듯 하나 內容은 역시 心性에 관한 것과 大同小異하며, 다만 한가지 단점지을 수 없는 것은 黃中允의 天君紀序이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처음 학문의 길을 알지 못하여 鄭逵³⁰⁾·朴槿³¹⁾ 두 선생님의 門下에서 겨우 학문의 길은 알았으나, 세상일이 如意하지 못하여 그 길을 알고서도 行하지 못하는 자기의 과오, 장래의 莫及함과 지난날의 망서린 오류를 이 편의 寓言 가운데 기술하여 스스로 깨우치고 힘써서 옛학문의 길에 가까와지고자 한다. 崇禎 癸酉(仁祖 11년, 1633) 中秋 東溟老夫 序”(原文省略)라고 했으니 東溟은 黃中允의 號이며 <天君紀序>라는 제목과, 이 글을 寓言’이라고 한 점으로 봐서 心性을 擬人化한 作品이 틀림없을 것이며 또한 序文을 붙인 것으로 봐서 상당한 力作일 것임을 짐작하겠으나 尙今 그 <天君紀>를 찾지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 금할길 없다. 비슷한

30) 號, 寒岡. 諡, 文穆. 退溪, 南冥, 大谷, 三賢에게 受學한 朝鮮朝 宣祖~光海君 때의 大學者, 著書에 <心經發揮>外 10여편이 있음.

31) 號大菴(1549~1606) 鄭述의 門人, 처음 鄭仁弘과 親交하였으나 後에 鄭이 權勢를 부리자 絶交하였음. 壬辰倭亂에 義兵活動이 많았음.

體裁의 글로서는 約 2世紀後에 지어진 鄭琦和의 《心史》에 〈天君本紀〉라고 篇名을 붙이고 있는 作品이 있으니, 두 作品의 關係가 더욱 緊密하다.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고 힘써서 옛 학문의 길에 가까와 지고자 한다'는 말로 보아서는 〈天君紀〉의 지은이도 作者 自身の 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 心性系列의 作品들이 내게 曹植의 〈神明舍并圖〉계통을 잇고있다는 것을 더욱 證明하게 하는 것으로는 〈神明舍天君紀〉란 題目과 〈天君實錄〉에 「太初元年 天君御于 神明之舍」³²⁾ 등의 용어로 봐서 한층 분명하다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神明舍并圖〉를 說明할 때 筆者가 宇宙의 原理와 國家의 政治組織과 人體 構成 原理를 三位一體로 보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서는 梅窩 崔韓의 (天君說)을 들 수 있다.

그 첫머리에서

“大(當作天)君의 命함이 있는 것이 나라에 君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나라에 君이 있고난 후에야 나라가 성립될 수 있고 外寇가 넘겨다 보는 外患이 없으며, 家庭에 家君이 있는 후에야 家庭이 될 수 있어서 집안이 화합하고 정숙한 본모기를 얻을 수 있으니 이는 다 각자의 家庭事와 사람의 身上에 天君이 있다는 것에 淵源하고 導出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大君有命，國之所以有君也，家人嚴君，家之所以有君也，國有君而后可以爲國，而無外寇覬覦之患，家有君而后可以爲家，而有闔閭誰肅之效，是皆由於自家身上有天君者，導而致之也」.

그리고 心・耳・目・股・肱・手・足 등의 기능에 대한 正・曲을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說明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는다.

이와 같이 心性系 作品의 系列表에서 禹秉鍾의 〈天君傳〉이 나오기까지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3세기간에 걸친 작품들의 장르的인 면과 內容의 一部를 대충 살펴 보았으나 뒷표에 나타난 14편의 心性系 作品이외에도 아직 發見하지 못한 作品들이 많이 남아있으리라 믿는다. 그 端緒로서는 前示 黃中允의 〈天君紀〉가 있을 것이고 또한 〈天君實錄〉跋文에는 石嶽公의 〈軀書〉라는 作品이 있는데 亦是 心性系 作品임이 分明하다.³³⁾

이와 같이 心性系 作品은 同一한 素材內에서 다룬 작품으로는 우리 文學 史上 비교적 많은 量에 屬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時期에 있어서 宋學 곧 心性理學研究의 一大盛況과 無關하지 않다고 본다. 大小의 作品들이 心統性情

32) 《韓國漢文 小說全集 卷六》p.172.

33) 《水西集 卷之五 天君實錄跋》;「昔東岡先生著天君傳 族先祖上舍 石嶽公 編軀書而傳恐太略 書涉太煩……」

의 構造的 特性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또한 二當時의 學問的 추세와 并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이 本研究의 대상인 禹秉鍾의 <天君傳>에 이르러서는 題目은 같으면서도 內容에 있어서는 자못 屈折되어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은 이미 19세기 中葉을 넘어선 시기라서 다음의 作品의 分析에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天君傳>에서 本稿 禹秉鍾의 <天君傳>에 이르기까지의 作品들의 系列을 瞥見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四. 行狀과 托傳

行狀은 남이 쓴 작자의 一生行蹟임에 比하여 托傳은 작자 자신이 쓴 자기의 行蹟이기 때문에 작자의 사상이나 人生觀을 알아보기 가장 좋은 자료라 생각되므로 같은 항목에 넣었음.

1. 行狀의 要約

氏名: 禹秉鍾. 號, 惺窩, 自號, 愚翁, 丹陽(山)人, 父, 德郎敏, 哲母. 恭人 順天 朴忠燁 女. 1820年 庚辰 2月 19日 夏山(昌寧) 桂洞에서 出生. 1883年 癸未 7月 21日卒. 享年 64歲.

출생 夢兆에 神龍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함.

七歲: 스승(미상)을 찾아 공부하였는데 스승을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하고, 돌아가 시자 3년상을 입었다고 함.³⁴⁾

十歲: 小學을 讎帙 읽고서 말하기를 道에 들어 가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구나 라고 했으며, 글을 읽음에 반드시 仁을 구함으로써 爲己之學에 뜻을 두어 힘써 誠과 敬의 道를 터득했다고 함.

17歲: 부친의 命에 의하여 四書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중 三書를 외우고 난 후에 애석하게도 병이 나서 마저 외우지 못하였다.

39歲: 親戚(祭酒로 있는)으로 부터 古人의 格言과 言行의 말씀을 듣고 과거를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 經典을 實踐篤行하는 것을 樂으로 삼고, 가세가 분다 청빈하므로 나물을 먹으며 굶주림을 참아가는 속에서도 안빈낙도하였다. 정성으로 양친을 봉양하며 효도를 했는데 母가 晩年에 失明되자 北辰에 기도하고, 다시 마윗산의 북대기에서 정성껏 기도하고 돌아 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는 異變을 당한후 一年만에 母眼이 열렸다고 함. 항상 병든 어머니의 뜻을 맞바라며 병을 간호하며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돌아가시자 3년동안 안방에 들어가서 아니하였으며 매일같이 성묘하였다.

34) 스승의 氏名未詳.

50歲; 乙丑年에 萬東廟 撤享時에 이 만동묘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朝鮮通寶 세 닢과 崇禎通寶 한 닢을 구해서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함

형제간에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형제들에게 더 많이 주고 자신은 적게 가졌다. 만년에 눈이 어두운 증세가 있어 그의 자제들에게 이르기를 내 병은 본디 속에서 난 병이고 나이가 많아 치료하기 어렵다 하고 끝까지 약을 쓰지 않으셨다.

다만 평생의 한이 되는 것은 선생의 遺稿가 간행되지 못한 것과 시호를 받지 못했 뿐이라고 하였음.

癸未(1883; 高宗20), 음 7月 21日에 일생을 마침.

配; 長淵 盧氏 希武의 딸, 슬하에 3男 3女, 長, 性熙. 次, 澤熙. 次, 海熙.

學問; 말이 없었으며 행동에는 절도가 있었다. 종일토록 책상앞에 앉아 책을 읽어도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오로지 性理의 학설에 뜻을 두었다.

高明한 학문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四書五經을 되풀이 해서 독송하며 諸子百家에도 능통했으며 아울러 천지 음양 귀신의 妙함과 역대의 治亂과 興亡의 사적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態度; 평소애 항상 窮理, 正心, 修身, 齊家를 긴요하게 여기고서 敬으로 근분을 삼으셨다. 善을 밝히는 학문을 강의하시고 자신도 반성하면서 실천하였다.

教訓; 한갓 입에 단것과 귀에 솔깃한 맛들만 숭상한다면 비록 다섯수레쯤 되는 많은 책을 다 읽더라도 책은 책대로 나는 나래로되어 버리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고 하였으며,

1904年 동짓날에 成均館 大司成으로 있는 德殷 宋鍾奎 撰함.

2. 托傳小考

이상은 他人이 지은 作者 禹秉鍾氏의 行狀이거나와 그에게는 특별하게도 그의 自序傳格인 托傳이 있기 때문에 그의 潛在思想을 엿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행장을 통하여 그의 一生事跡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考察에 不過한 것인데 可能的한 그의 自序傳을 통하여 그의 內的 心理 상태를 살펴 본다는 것은 作家意識의 反映이라는 면에서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과거 近代以前 東洋에 있어서는 自序傳이라고 내세운 장르의 글은 찾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東洋의 傳記에는 褒貶性, 模範性, 傳達性의 세目的에 依하여 지어졌던 것이다³⁵⁾. 따라서 自序傳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褒貶性 때문인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표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³⁶⁾

35) 拙稿〈慵夫傳의 托傳性〉嶺南大學校《國語國文學研究》第15輯 p. 61~12; 19712.

36) 拙稿〈釋息影庵文學研究〉韓國語文學會《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韓國語文學大系Ⅱ. p. 395; 1975. 10. 20.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시인할 수 있는,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행적에 대하여는 남이 그의 傳을 지어 주겠지마는 때로는 사람에게 따라서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속세의 통념에 벗어나는 인생관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을 남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傳도 지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佳懷를 침묵해 버리기에는 인간의 표현 본능상 견딜 수 없는 것이며 사회를 위해서도 不幸한 일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變則이 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第三者에게 假托하여 傳을 짓게 된 것이 托傳인 것이다.

여기에 그 代表的인 實例로서 晉나라 陶潛의 〈五柳先生傳〉을 들 수 있다. 陶潛이 彭澤의 守令이 되었다가 80日만에 사표를 던진 심정은 사회의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심정을 朱子가 잘 대변하고 있으니 “潛은 높은 뜻과 심원한 견식이 있어서 속에 따라 굽신대거나 거들 댈 줄 몰랐다. 일찌기 彭澤의 守令이 되었는데, 督郵³⁷⁾가 속현을 순찰차 이르게 되자, 이방이 아뢰기를 마땅히 띠(帶)를 단정히 매고 접견해야 한다고 하자, 潛이 단식하기를 내가 어찌 닦말의 쌀을 받기위하여 시골뜨기 小兒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겠느냐 하고, 즉일로 현령의 증표인 印綬를 풀어 놓고 가버렸다³⁸⁾.”

(潛有高志遠識，不能俯仰時俗，嘗爲彭澤令，督郵行縣，且至，吏曰當束帶見之，潛歎曰吾安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兒邪，即日解印綬去)

우리 나라 작품의 實例로는 朝鮮 世祖朝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成倪의 〈慵夫傳〉를 들 수 있다. 그가 처음 世宗~文宗朝에 集賢殿學士로 공부하면서 治國平天下를 그리다가 世祖의 王位찬탈 사건이 일어나자 절망한 나머지 자기의 갈길을 몰라 명칭하게 되었으니 慵夫란 別號를 붙이게 되었고, 그후 世祖治下에 벼슬을 하자는 친구의 권유를 여러번 물리쳤으나 결국에는 교묘한 유혹에 빠져 벼슬을 하게 된 처지를 자기변명으로 쓰여진 托傳이 곧 〈慵夫傳〉인 것이다. 이외에도 成倪의 〈浮休子傳〉이라든가, 申立仁의 〈臥翁傳〉³⁹⁾, 吳在永의 〈長飲先生傳〉⁴⁰⁾, 崔東翼의 〈無有先生傳〉⁴¹⁾ 등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⁴²⁾ 여기 禹秉鍾의 〈八桂愚翁傳〉도 이 세로 발견된 托傳中の 한 作

37) 漢代官名 郡守의 輔佐役 소속縣을 巡察하며 官吏들의 成績을 調査하는 일을 주로 함. 《大漢和辭典》卷八 p. 233.》

38) 黃堅編《古文眞寶後集》明文堂刊 卷之一 p. 49.

39) 申立仁(1736~1804) 懼菴集〈臥翁傳〉

40) 吳在永(1865~1919) 小齋集〈長飲先生傳〉

41) 崔東翼(1868~1962) 清溪集〈無有先生傳〉

42) 拙稿〈托傳研究〉1973. 嶺南大 國語國文學研究 第15輯 p. 61에서 ‘白雲居士傳’, 〈硯山隱者傳〉 및 〈慵夫傳外〉에는 과묵한 뜻으로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을 이제 수정하게 되었음을 사과해 둔다.

品이다.

〈八桂愚翁傳〉譯

「愚翁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며 또한 그 성명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마을에 옛부터 전해 오는 여덟그루의 계수나무가 있으므로 인하여 그것으로 號을 삼았다. 성질이 산과 들을 매우 좋아 하고, 現今에 살면서도 옛 것을 좋아 하고, 독서를 좋아하여 老子나 釋迦를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순박한 옛 풍속이 사라져 가는 것을 개탄하여 일찌기 치세의 길을 사양하고 물품의 교환을 드물게 하니 또한 도시와 시장을 멀리하며, 멀리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재산을 모우거나 할방치축으로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위하고 나라를 진보시키고자 혹 꿈속에 상소하기도 하였다. 자손들이 우매 할까와 글을 일마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도록 권하였다. 罔媒⁴³⁾로 매어 있는 새를 풀어서 날다 보내도록 힘썼으며, 마을에 제앙이 있으면 고기를 잔 먹지 않으며 더우기 집에서 기른 가축의 고기는 차마 먹지 아니하더라. 모든 음식과 거치와 의복이 다 검소하고 소박하며, 그 행동거지가 마치 비가 개인 하늘을 보는듯하더라. 그뜻이 처음부터 고상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나, 언제나 좋아하는 것은 숲과 바람과 개울물에 비친 달을 즐기는 데 있더라. 간혹 몇마디 글을 지어서 자못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세속의 유행에 휩쓸리기를 싫어하며 자연스레이 생명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評曰, 斬裁⁴⁴⁾의 말에 선비의 品格이 태초로 세가지가 있는데, 道德에 뜻을 둔 자는 공명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명에 뜻을 둔자는 부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부귀에만 뜻을 둔자는 곧 공자가 이른바 鄙夫인 것이다. 愚翁의 品格을 판단하여 보건대 공명이나 부귀를 구하는 사람의 짝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에 뜻을 둔 사람이 아니겠다. ‘말을 갈아서 먹으며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며, 닭이 울면 일어나니, 요임금의 백성인가 순임금의 백성인가.’ (原文省略)

이 托傳이 작가 자신의 自傳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증명된다. 첫째 文句에 있어서 첫머리에 주소 성명을 굳이 감추고 있는 점과 ‘간혹 荒詞⁴⁵⁾를 지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남의 글을 황사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문장 전체의 행적이 벼슬을 하지 않고도 덕에 힘입어 행장과 일치한 점이며 둘째로, 글의 형식과 文句의 사용이 거의 陶潛의 〈五柳先生傳〉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형식은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다만 평어에 붙이는 말이 〈五柳先生傳〉에서는 ‘贊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評

43) 罔 鳥媒의 合縮語로 뜻은 새를 잡는데 다른새를 유인하기 위하여 묶어둔새(繫傳) 罔者 誘禽鳥也, 即今鳥媒.

44) 宋 穎川人 儒術에 通하였을 胡安國이 일찌기 이를 事師할. 楊家駱 主編 冊文繫局刊 25史《宋史卷 435》p.12909.

45) 所樂在於林風澗月間, 著荒詞頗示己志.

曰'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특히 서두에 人定記述과 論評部 結末에 '陶唐氏之民歟 有虞氏之民歟'는 <五柳先生傳>의 '無懷氏之民歟 葛天氏之民歟' 그대로 되어 있다. 따라서 <五柳先生傳>이 陶潛의 自傳의 隱托임을 否認하는 자가 없다면, 이 <八桂愚翁傳> 역시 작자 禹秉鍾의 自傳의 隱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托傳을 通하여 볼때 작자의 人生觀은 공명과 부귀를 싫어하고 도덕을 숭상하는 爲己之學에 전념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五. 作品의 分析 및 文學性

1. 作品의 內容分析

이 心性系 傳은 一般의인 假傳이나, 人物傳記 및 其他 小說을 다루는 方法으로는 作品把握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傳'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이야기를 進行시켜 나아가는 줄거리도 없다. 心性의 根源과 그 作用을 說明하는데 天·國·人의 三元的인 비유법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主人公과 補助人物들이 設定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들이 假傳程度의 固有名詞도 쓰지 않았으며 대개 그 역할에 따라 職責이나 地位등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나 추상명사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性理哲學의 內容을 바탕으로 하고 이야기의 進行에 따라 全文을 번역함과 동시에 全體를 A~E의 五단락으로 大分하고 그것을 다시 14 갈래로 細分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A. 三才의 根源

①. 天君者는 靈胎人이다.

②. 그 조상은 皇上帝인데 乾에 位置하고 坤에 작하여서 三男三女를 두었으니 男은 震, 坎, 艮이고, 女巽 离·兌인데 건전한 順理에 따름으로써 二氣가 六虛에 두루 흘러 二萬一千六百年을 지나

③. '寅' 해에 이르러 비로소 天頭地足한 사람이 생기니 이에 天地人 三才가 갖추어 졌다.

B. 心統成立

④. 帝께서 無爲之化를 숭상하여 그윽하고 잠잠한 가운데 세상에 내려오니, 소위 大君이라 하는 것은 宗子가 되고 大臣이라 하는 것은 宗子의 家相이 되어서

⑤. 人道로써 億兆를 教化했으나 잘 施行되지 않으므로 일찌기 마음을 트

46) 貞明《易，繫辭下》日月之道 貞明者也<本義>貞 正也常也……日月之道則常明.

이게 하여 九竅(아홉가지 구멍)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거기에다 각각 허령한 心을 붙쳐서 一身을 主宰하고 비로소 嘉號를 내려서 靈垓主人이라 불렀다.

C. 性情的 體와 用

⑥. 帝께서 主人에게 이르기를 통털어서 내가 너에게 여러말중에서 먼저 곱하노니

⑦. 너는 모름지기 靜함으로써 仁·義·禮·智의 性品을 養成하고

⑧. 動함으로써 愛, 恭(敬), 宜, 別의 情을 살피서 허령한 마음을 늘 간직하여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없게 하여 나(帝)의 마음을 더욱 삼가하게 할지 어다.

主人이 예, 하고 물려가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말을 받들어 지키니 그 후에 天君이란 칭호는 世上의 선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칭호가 되었다라

D. 虛靈知覺

⑨. 天君의 運用法이 妙妙靈靈해서 極數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萬事의 玄妙한 機微를 꿰뚫어 보고 思考는 貞明⁴⁰⁾, 곧 日月의 밝음을 빌리지 않고도 九州의 神光을 밝혔으며, 體와 用이 혼원(渾圓)한 가운데서 사라지고 나타남이 밝고 융통하여 天文과 地理 및 人事의 紀元이 되더라.

⑩. 그래도 오히려 帝의 敎訓에 어긋날까봐 即位함에는 반드시 泰平하고 安定된 집에서 하고 太和를 으뜸으로 나라를 세우고 실수없는 政治를 닦아서 앞에는 四勿의 깃발을 나열하고 밖에는 防意의 城을 쌓으니 하루에 萬機를 처리하여도 다 조심히 業을 따르더라.

⑪. 처음에 皇上帝께서 직접 하림(下臨)하시어 말씀하시기를 감히 혹시라도 두 가지의 이것이 있을까봐 그 傳統은 반드시 聖子 神孫으로 잇게 하고 혹 桀紂와 같은 폭군이 생기어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늘이 賢君을 내려준 즉 賢君에 따를 것이다.

E. 論評

⑫. 惺窩居士曰, 크도다 天君이 임금됨이여 진신로 넓디 넓어서 무엇이랴 말을 할 수가 없도다. 이제 그 거동을 말한다면 體와 用을 다 포함하며, 動과 靜을 겸하였으며, 內와 外를 합하였으며, 本과 末을 다 갖추었으며, 幽와 明에 通하였으며, 古今을 貫通하였으니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妙하고 지극히 신령한 것이 天君이다.

⑬. 저 속세의 임금들이 착하지 못한 짓을 하여, 혹 길모양만 아름답게 꾸며서 교묘한 거짓을 習用하는데 흐르고, 혹은 갑작스런 기분에 따라 그 部類와 隊伍를 잃어 버리는 수가 허다하며. 혹은 욕심에 빠져서 도적무리

의 장이 되어 떼앗고 정벌하는 것을 생각하나 그러나 이것은 다 天君의 本情에 있는 用法은 아니다. 진실로 세속의 임금으로 하여금 그 天君을 섬기기를 天君이 上帝를 섬기듯이 한다면 堯舜과 같은 二帝가 나오고, 二帝에서는 禹, 湯, 文·武와 같은 三王이 나오고, 三王에서는 齊의 孟嘗君이나, 趙의 平原君이나, 楚의 春申君이나, 魏의 信陵君과 같은 훌륭한 四君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天君者靈胎人也, 其先曰皇上帝, 位乎乾而配乎坤, 有三男三女, 男曰震坎艮, 女曰巽離兌」因以健順, 二氣周流六虛, 歷二萬一千六百年而至于寅, 會始生天頭地足之人, 得備三才矣, 惟帝尙無爲之化, 幽默之中以下世, 所謂大君者爲宗子, 以所謂大臣者爲宗子之家相, 使以人道, 教億兆而教不可勒施, 故亦嘗方寸啓出, 教受教之寮, 各付以虛靈之心, 而主宰其身, 肇錫嘉號曰靈胎主人, 帝謂主人曰, 都子告汝群言之首, 汝須靜以養仁義禮智之性, 動以審察愛恭宜別之情, 弔有靈, 無怠簡在, 帝心尙愼旃哉. 主人曰俞退藏於密, 請事斯語矣, 厥後有天君之稱, 乃世儒之上尊號也, 天君運用妙妙(妙)靈靈, 不待於極數, 而元有微萬微之玄, 思不借於貞明, 而亦有燭九垓之神光, 體用渾圓, 隱顯昭融常爲天文地理人事之紀也. 猶恐其有帝訓之或違, 其即位, 必于泰定之字, 而建太和之元脩無逸之政, 前例四勿之旗, 外築防意之城, 一日萬幾, 皆從兢業中, 追去曰上帝寔臨, 其敢或貳茲, 故其傳統必于聖子孫傳, 而其或天興賢則興賢.

惺窩居士曰大哉, 天君之爲君也, 案是藹蕩乎無能名焉者矣, 今止曰包體用兼動靜, 合內外, 該本末, 通幽明, 貫古今, 至廣, 至大, 至妙, 至靈者天君也, 彼世君之作不善, 或流於意匠之習用巧詐, 或坐於氣卒之多失部伍, 或陷於慾寇之長, 思奪伐而然皆非天君本情之用也, 苟使世君事厥天君, 若天君之事上帝則 二帝, 可三, 而三王, 可四也.

A. 三才의 根源

三才의 根源이란 題目은 반드시 내용에 꼭 맞다고는 하기 어렵고 그 중심만을 던지한 제목이다. 따라서

①에 있어서 이것은 傳體小說의 額字形과도 관계있는 所謂 人定記述이다. 비록 이 글에서는 傳記의 三要素中 褒貶性을 缺하고 있어서 사실상 人定記述이란 必須的인 요건은 아니지만 傳體의 장르적 樣式에 맞추어 쓰여진 것이니 ‘天君’은 곧 天君傳의 主人公인 心이며, ‘靈胎’는 그의 本貫에 해당하는 地名인데 신령스러운 언덕이란 의미로 지어진 듯하다.

②도 傳記의 人定記述에 수반된 그의 祖上의 記錄이다. 儒家倫理의 中心은 孝이며 孝의 最高의 길은 立身行道하여 揚名於後世하여 以顯父母하는 것이 孝之終이니까⁴⁷⁾. 그의 祖上 皇上帝는 語意上 皇帝의 父가 되겠으나, 다 음말과 연관지워 본다면 宇宙의 根源이 太極이며, 太極이 剖判하여 乾과 坤

47) 明星出版社 1951. 《原本小學集註 卷之二 p. 32》

으로 (하늘과 땅이 分離됨을 뜻함)되는 것을 皇上帝가 乾에 位置하고 坤과 짝이 되어 三男三女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남자에는 震·坎·艮이고 여자에는 巽·離·兌로 하였는데 이 '三男三女'는 저자 禹秉鍾 自身이 三男三女の 子女를 둔 것과 一致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으로 處理해야 할 것이며, 이 '三男三女'는 乾·坤과 합쳐서 八卦를 뜻한다. 八卦는 小成卦 여덟개란 뜻이며, 各小成卦는 陰爻·陽爻間에 3개씩으로 이루어진 것은 天·地·人 三才를 意味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八卦는 각각 自然, 人間, 性質, 方向, 身體, 動物등에 해당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表를 살펴보자⁴⁸⁾.

卦形	卦名	意味 하는 것					
		自	然	人	間	性	質
三	乾	하늘	父	강건	西北	머리	말
三	兌	못(澤)	少女	즐거움	西	입	양
三	離	불	中女	불음	南	눈	평
三	震	우뢰	長男	움직임	東	발	용
三	巽	바람	長女	들어감	東南	다리	닭
三	坎	물	中男	빠짐	北	귀	돼지
三	艮	산	少男	정지	東北	손	개
三	坤	땅	母	유순	西南	배	소

‘二氣’는 陰과 陽, 곧 天地之氣⁴⁹⁾이며, 六虛⁵⁰⁾에 두루 흘러서 21.600년을 경과한다. ‘21.600’년은 《皇極經世數》의 數理⁵¹⁾를 應用한 것으로 小運⁵²⁾(30日(1月)×12月(1年)=360日×60(60甲子年, 사람의 一生)=21.600日)에서 이것을 大運⁵³⁾의 數理에 應用하면 1世(30년)×12=1運(360년), 1運×60甲子=21.600년의 時間을 경과한다(?)는 뜻일듯 함, 그리하여

③, 寅(새벽, 곧 人獸가 起動하는 時刻)에 이르러 머리를 하늘로 두고 발

48) 南晚星譯解, 玄岩社刊《周易》p. 23.

49) 周敦頤《太極圖說》二氣交感 化生萬物.

50) 六虛에 세가지 (六爻, 六位, 六合). 여기서는 六合 곧 上·下·四方을 뜻한다. 《列子 仲尼》「用之彌滿六虛, 廢之莫之其所」

51) 宋 邵雍의 先天의 數理를 應用한 書인에 근거는 12辰을 1日, 30日을 1月, 12月을 1年, 30年을 1世, 12世를 1運, 30運을 1會, 12會를 1元으로 하니 1元은 곧 129.600년인데 天地는 1元에 의하여 한번 變遷하는 것이라 함.

52) 大洋書籍刊《韓國名著大全集》中《花潭集, 皇極經世數解, 註》199

53) 司馬遷《史記 天官書卷五》中國學術名著叢刊 p. 1351.

「此天地客氣 其發見亦有大運」

을 땅으로 둔 直立歩行의 사람이 태어나니 비로소 天·地·人 三才가 구비되었다.

B. 心統의 成立

④는 太極은 저절로 化生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가운데, 宇宙, 人間을 化生시키니 國家에는 大君(王의 嫡子)이 王系를 잇고, 大臣이 國家를 구성하는 재상이 된다. 또 大君은 理가 되고 大臣은 氣가 되니 사람에게는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으로도 비유된다.

⑤는 全體가 國家의 教育政策같이 시작하고 있으나 뒷 부분으로 봐서는 오히려 사람의 人體機能에 집중되어 있는듯 하다. 곧 人體의 正常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胎兒의 상태로 부터 自然的으로 成長하는 自然的 攝理에 따라 出生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知能을 제발시키고 九竅(耳孔 2, 目孔 2 鼻, 孔 2 口孔 및 下體의 前孔, 後孔)의 기능을 발휘케 하고 一身을 主宰하는 心의 기능이 確立되어 비로소 主體的 獨立된 人間이 完成되니 하나의 主體의 人間 곧 靈胎의 主人이 된 것을 뜻한다.

C. 性情의 體와 用

⑥에 帝(太極)의 섭리는 主人(心)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부여하는데 그 첫째의 것이 人間 性情의 體와 用이다.

⑦, 靜함으로써 木之秀인 仁, 火之秀인 禮, 金之秀인 義, 水之秀인 智가 되는 未發之性을 기로라 하였으니 이는 곧 心의 體가 될것이다.

⑧, 動함으로써 具愛之理는 仁, 具敬(恭)之理는 禮, 具宜之理는 義, 具別之理는 智이며, 이것의 發端이 곧 惻隱, 辭讓, 羞惡, 是非를 살피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已發之情이 되니 心之用이 될 것이다⁵⁴⁾. 이러한 人性的 綱領을 항상 닦고 지키기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뜻일 것이다.

⑨, 主人 곧 사람의 마음에 수궁이 되어서 이 원리를 지키고 正其心하는 것으로 修身의 根本을 삼으니 세상 儒家의 선비들이 天君 곧 心性의 學問을 가장 尊한다는 뜻이 되겠다. 특히 작자와 같이 爲己之學으로 一生을 보내는 선비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이라 믿는다.

D. 虛靈知覺⁵⁵⁾

“妙妙靈靈”에서 妙는 곧 虛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極數는 《皇極經世數》를 意味하는데 이에 ‘依하지 아니하고’란 말은 저자의 性理學問의 계통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皇極經世》의 저자인 邵雍의 弟子라고 할 수 있

54) 李滉《退溪集》, 心統性情圖說. 第六心統性情圖, 上圖》

55) 李滉 ibid 下圖.

는 朱熹까지도 이 숫자들을 변화시켜 天地運行的 모든 현상을 說明하는 方法을 ‘易外別傳’이라 하여 그 과학적인 근거를 의심한듯이 말하였으니⁵⁶⁾ 이 <皇極經世數>인 ‘極數’를 기다리지 않는다 함은 ‘易經’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자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萬事의 玄妙한 機微를 때 뚫어 봄’은 사람의 靈感을 뜻하며 九州의 神光은 天下의 밝은 빛이나 이는 곧 人體의 全身에 神經感覺이 通하고 있음을, ‘體와 用이 渾圓한 가운데 사라지고 나타남’은 肉體와 精神이 渾然一體가 되고 낮과 밤에 잠자는 靜止 상태와 活動하는 상태의 되풀이 됨이 모든 活動의 기준이라는 뜻이라 하겠다.

㉑ ‘帝의 敎訓’은 本然之性이며 이와 平行하는 清濁美惡의 氣質之性에 隨伴하는 濁과 惡으로 빠지기 쉬운 知覺활동의 경계할 점을 비유한 것이라 믿어진다.

㉒는 저자의 心學공부 系統을 제시한 갈래로 볼 수 있다. ‘두가지의 이것이란 性善說과 性惡說을 指摘한듯 하다. 만약에 告子의 性白知說⁵⁷⁾을 넣는다면 세 계열이 되겠으나 이 學說에 對하여는 거의 無視된 當時의 경향에 따라 저자 역시 의식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聖子神孫’으로 잇게 함’은 性善說 계열의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그래도 혹 桀·紂와 같은 暴君이 생기어 세상을 어지럽힐때는)湯이나 文王·武王과 같은 賢君에 따르라는 이 <天君傳>저자의 마지막 處世에 對한 哲學的 判斷인 듯하다.

E. 論 評

이 論評부의 評題語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客觀적으로 쓰여진 文章에 작자가 直接的으로 介入함을 分明히 한 것으로 <離騷>·<九章>·<招魂>等 楚辭계통에서는 ‘亂曰’로 되어 있으며 陶潛의 <五柳先生傳>에서는 ‘替曰’ 또는 ‘辭曰’ 其他 自己의 職責, 號등을 表題하고 있으나 그 中心은 <史記>의 ‘太史公曰’이 그 代表인 듯 하다.

여기에는 作者의 號에다 居士(布衣의 비전)란 自身의 處地를 나타낸 말로 시작하였는데, 前半 ㉑에서는 天君의 德을 칭송하였고 後半㉒에서는 天君의 本然性을 잘 지켜 나가면 聖帝, 賢君도 나올 수 있다고 未來像을 제시하고 있다.

2. 文學性

<天君傳>은 心性을 素材로 한 假傳作品이다. 假傳을 文學에서 다루게 된

56) 《韓國名著大全集》大洋書籍刊《花潭集 皇極經世數解 註》p. 198.

57) 景文社刊《孟子集註大全卷之十一告子章句上》p. 212.

은 趙潤濟先生 님의 〈國文學史〉에서부터 이기에 많은 先輩學者들께서 거의 例外 없이 文學史의 한 파트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天君傳〉을 文學의 範疇로 다루는 것에는 異意가 없을 줄 안다.

假傳의 文學性은 創作的 半虛構性과 故事引用의 巧妙性에서 오는 讀者의 共感性에서 그 文學的 價値를 論할 수 있다. 이때 讀者의 共感性이란 無識한 大衆에게는 설사 文章을 눈으로 읽을 수 없어서 귀로 듣는다 하여도 아무런 共感을 얻을 수 없는 것이 假傳文學의 制限의인 特性을 가져오게 된다.

演技者의 模倣은 人間行爲의 綜合的, 立體的, 廣範圍한 모방이므로 관객이 어떤 연극이든지간에 그에 대한 실제의 自然이나 人間活動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관객은 聾, 啞, 瞎을 兼한 不具者以外에는 거의 없을 것이겠으나, 이것이 小說이 되고 보면 이를 鑑賞하는 享受主體는 글을 읽을 수 있는 大衆으로 축소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大衆小說이라고까지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 소설을 읽지 못하는 大衆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시 文藝의 순수 小說이 되고 보면 享受主體는 더욱 제한 될 것이다.

옛날 사랑방이나 안방, 초담방에서 고담소설을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듣고 즐기는 것은 文字해독의 제한성도 그 이유의 한 몫을 차지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다시 漢文小說이고 보면 讀者의 범위는 한층더 제한되는데, 假傳이 되고 보면 編綴된 故事를 모르려는 그 滑稽의인 模倣의 巧미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옛 漢文을 읽으려던 어느 정도의 故事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一般假傳을 鑑賞 못할 사람은 별로 없을 줄 믿지만 현대 中國語만으로는 假傳의 享受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필자의 경우도 포함해서) 心性假傳에 접하면 그 복잡성에 이마를 찌푸리는 사람이 많은 줄 안다. 그래서 心性假傳의 文學性을 의심하기까지 하였는데 일전 몇몇 친구와 단골 술집에들어서면서 한 친구에게 그집 여중임원이 ‘김선생님 요사이 통 못보겠네요!’ ‘인제 안온다’ ‘왜요?’ ‘안온다’ ‘왜요’ ‘왔다’ ‘뭘봐요’ ‘……’ ‘뭘요?’ ‘가라리 네허어라’ 친구일행에서는 폭소가 터지는데 몇몇 여급들은 친구들의 웃는 모습만 쳐다보고 멍청히 웃는것이 기억난다.

性理哲學의 그 構造와 用語에 익숙한 사람이 매우 드문 요사이 國學界에 心性假傳을 읽고 共感度 높은 鑑賞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心性假傳 自體의 文學性은 原來는 건전하였지만 그 價値의 程度는 相對的 評價로 인하여 時代의 變遷에 따라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學問의

研究課題로는 無視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心性系 作品의 小說性 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心性系 作品의 系列表에서 規定이란 난을 설정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이미 金光淳의 《天君小說研究》란 大論文에서 다루고 있는 7個作品과 이 禹秉鍾의 〈天傳〉의 人物構成 比較表를 대조하여서 本傳의 位置를 分明히 하고자 한다.

心性系 作品의 人物構成 比較表

區分	protagonist										antagonist	
	天 君					忠 義 型					反 逆 型	
	先國號	出生地	建元	郡邑	天君名	義臣	文 臣	武 臣			奸 臣	亂 臣
天君傳	乾元帝	有人國	乾太初	胸海	初後心帝		太帝：敬義 百揆：義良 公子：	大將軍 克己志 公 子			公 子 懈 公 孫 傲	妖華柳群 賊督跖盜
張成志			高縣	降夷		主人翁 無極翁	仁，義，禮，智，喜，怒，哀，樂，祝，聽，言，動	魏襄將軍 (儒伯) (三州大都督) 驅愁大將軍			陶泓·毛穎 陳玄·楮知白	(愁城構成魂) 忠義，壯烈，無辜 生離別，冤魂紀信 屈原，宋玉，諸葛亮，李白，蘇軾，駱賓王
天君寅後	人皇氏		高縣	太初	丹府(神京)	朱明	惺惺翁 主一翁 誠意伯 主人翁	肺，脾，精，神，大腸，小腸，魂氏，魄氏，目官，耳，口官 (神明宮) 元仁，正義，文體，周知，孚信	主一翁，誠意伯，志帥 氣帥，天理，審悟，喜(驅愁將軍) 怒(建威將軍) 哀(懷德將軍) 樂(鎮歡將軍) 憂(揚揚將軍) 惡(督過將軍) 欲(五利將軍)	(文藝(文房四友)) 毛穎，陳玄，楮知白，陶泓 慾生，七情		越白(妖女) 歡伯(舍) 甘言，黑甜，慾生，百嬌，百媚 百媚，百妙
義勝記				元年	明堂靈治	×心帝		惺惺翁	孟浩然 (意馬)			盜賊 (宦海)
南靈傳	淡巴孤				方塘	南靈(西楚霸王)		南靈將軍 火正黎				秋心(愁) 憂心
心史(天君本紀)	沖漠君	夏	無極	中和	齊州(虛明界)	司星子虛 (虛靈) 惺惺翁 側隱之司 惺惺翁 辭讓之司 是非之司 收父(收放心)	浮于善 (左相) 田和節 (右相) (五事之官) 恭，從，明聽，睿 (五官) 貌，言，視聽，思	惺惺翁(大師) 志帥 誠意伯 五大夫 公子良			七湯，四靈，五寇，二豪，河間女，意必，固，煥，博，富，貴，七情，齊應物 無形寇，無形寇	齊應物，伎倆 無形寇，衛侯魏侯

음악은 가난한 산골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농사꾼의 처지에서 대상 속에 파고 들고, 가난한 두네 생활의 아름다움을 처절하게 그리면서 증편한 현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것이 복월과 음악의 향토적 정서가 지닌 본질적인 차이이며 좌우익 민족문학의 이질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측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학론이 창작으로 나타날 때는 향토적 정조를 이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향토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민족적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단에 <안서민요시집>²¹⁾이 나온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만 하다.

6. 민족문학론, 그 나아갈 길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민족문학의 나아갈 길을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로 한다.

(1) 두 갈래의 민족문학은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분열과 대립을 보이거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빈부와 계급의 격차없는 자유 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민족문학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우리 민족이 처한 삶의 현실이며 우리 민족문학이 추구하는 바 하나의 동질성이다.

(2) 민족문학의 개념은 과거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재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청산하는 것도 아니다. 민족의 삶과 현실에 바탕을 두고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민족문학이 성립될 수 있다.

(3) 민족문학이 창작으로 나타날 때, 선비들의 자연원상적 정서와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의 정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 것이나 향토적 정서가 흠뻑 배어 있다. 향토적이지 않고는 민족적이지 않다. 향토적이란 자연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생활 현장에서 존재하는 전통적인 삶과 풍속, 생활의식, 미적 정서 등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양측 민족문학의 巨頭였던 김동리의 “무녀도”와 “향토기”에서, 그리고 홍명희의 “임거정”에서 보이는 향토적 정서가 바로 그것이다.

(4)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남북통일이다. 남북통일은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

21) 金岸曙, 岸曙民謠詩集(漢城圖書, 1948).

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은 빈부의 극심한 격차에서 기인되는 불평등과 불만의 해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과 빈부의 격차없는 복지 국가 건설이 오늘날 우리 민족문학의 당면한 과제이다.

(5) 이러한 현실을 의식할 때, 우리 민족문학은 구비문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의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데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비문학만큼 향토적 정서가 짙으며 민족적 동질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비문학의 발전과정은 곧 민중의식이 성장해 온 과정이며, 봉건사회를 청산하고 근대사회를 이룩하려는 민족사의 한 전개이기 때문이다.

민중이 민족의 주체로 받들려질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복지 국가가 이룩될 수 있고, 민중문학이 문학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때 민족문학은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문학은 민중 스스로가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한 것이며, 민중 스스로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발생적이고 토착적인, 민중들의 집단적인 표현이면서 민중의 삶의 현실이나 생산활동과 밀착된 성격을 지닌다. 이런 까닭으로 오히려 민중문학은 문학적 생명력과 예술적 창조력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민중의 집단적인 의식, 곧 민족적인 정서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민중문학은 민중 스스로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창작된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한편, 그 존재 양식상 말로 전승되면서 재창조된다는 점에서 구비문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민중문학의 과제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우리 문학의 나아갈 바와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